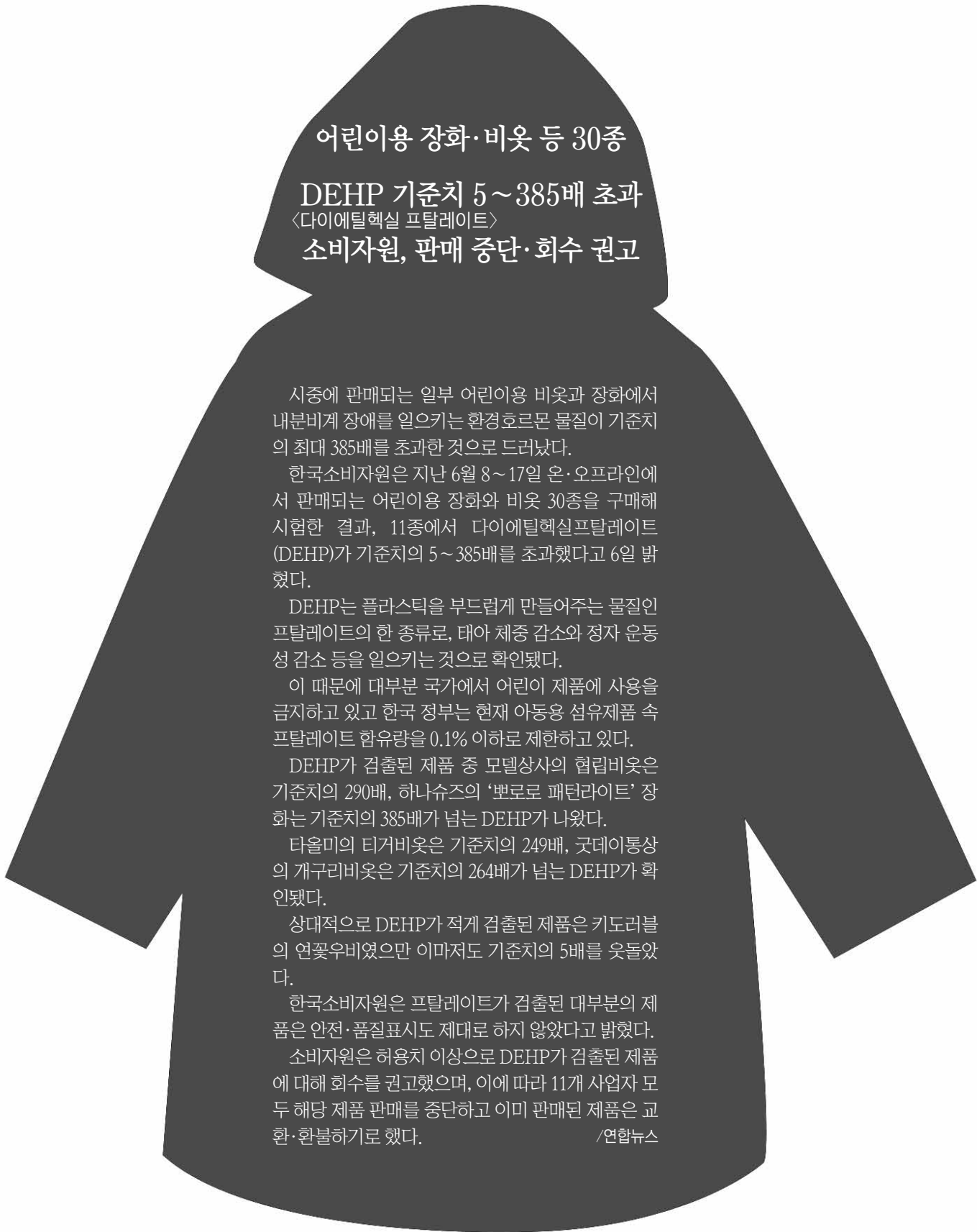


‘환경호르몬’ 우비



어린이용 장화·비옷 등 30종

DEHP 기준치 5~385배 초과
(다이에틸헥실 프탈레이트)
소비자원, 판매 중단·회수 권고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어린이용 비옷과 장화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385배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6월 8~17일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장화와 비옷 30종을 구매해 시험한 결과, 11종에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기준치의 5~385배를 초과했다고 6일 밝혔다.

DEHP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물질인 프탈레이트의 한 종류로, 태아 체중 감소와 정자 운동성 감소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 어린이 제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한국 정부는 현재 아동용 섬유제품 속 프탈레이트 함유량을 0.1%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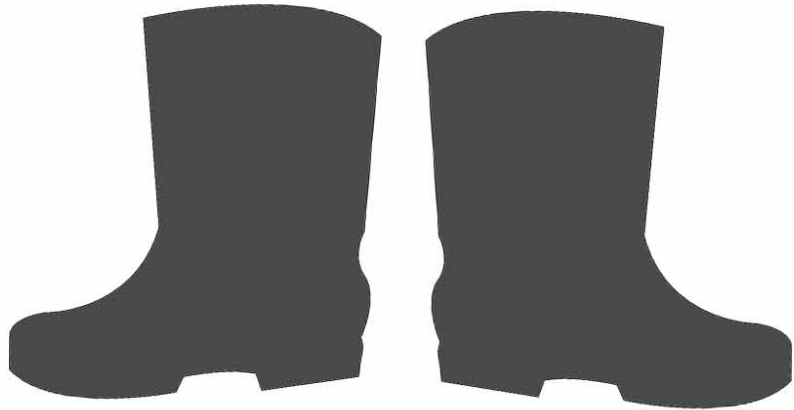
DEHP가 검출된 제품 중 모델상사의 헝리비옷은 기준치의 290배, 하나슈즈의 ‘뽀로로 패턴라이트’ 장화는 기준치의 385배가 넘는 DEHP가 나왔다.

타올미의 티거비옷은 기준치의 249배, 굿데이통상의 개구리비옷은 기준치의 264배가 넘는 DEHP가 확인됐다.

상대적으로 DEHP가 적게 검출된 제품은 키도러블의 연꽃우비였지만 이마저도 기준치의 5배를 웃돌았다.

한국소비자원은 프탈레이트가 검출된 대부분의 제품은 안전·품질표시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허용치 이상으로 DEHP가 검출된 제품에 대해 회수를 권고했으며, 이에 따라 11개 사업자 모두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환불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천연향 그대로... ‘동의나라’ 우영차 출시

동의나라, 농심과 상생

국내 유일의 병입가공 전문업체인 동의나라(대표이사 강기운)가 농심과 손잡고 구수하고 깔끔한 맛과 천연향이 그대로 나는 ‘동의나라 우영차’(사진)를 출시했다.

동의나라 우영차는 집에서 손수 우영을 볶아 끓여낸 것과 같은 맛과 농도를 구현한 차음료다. 그동안 우영차가 좋은데도 집에서 일일이 끓여먹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기능성과 맛까지 충실한 우영차로 자리매김했다는 평이다. 국산 우영 100%에 농도는 0.3브릭스, 맛까지 부드럽고 편안하다.

이번 제품은 대기업인 농심이 품질관리를 돕고 유통을 맡아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반성장하고 상생했다는 의미가 크다.

340ml 페트병으로 소비자들이 경계하는 합성 인공향과 방부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설탕, 무칼로리 등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편히 마실 수 있는 웰빙음료를 실현했다는 게 제조업체의 설명이다.

제조업체는 병입음료인 병입수 가공노하우를 이용해 우영을 차로 가공해 기능성은 그대로 유지한 채 맛과 향이 살아 있다고 덧붙였다.

강기운 대표는 “다이어트 기능과 향



당뇨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흡소핑 등에 우영을 우려먹을 수 있는 상품들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며 “동의나라 우영차는 음료로 생산돼 집에서 우려낸 그대로의 맛을 언제 어디서나 편히 즐길 수 있는 게 특징”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온라인 화장품 쇼핑물

불만 댓글·배송정보는 “비밀”

교환·반품, 임의대로 15일 규정·사용 후기 비공개 등
공정위, 더페이스샵 등 9곳 ‘눈속임 영업’ 과태료 부과

제품 환불 기한을 임의로 정해 고지하거나 고객 불만이 포함된 게시글을 숨기는 등 부당하게 영업해 온 유명 화장품 브랜드 쇼핑물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법 사실이 드러난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9곳에 경고조치와 함께 과태료 총 32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미즈온, 쏘내추럴, 아모레퍼시픽, 에뛰드, 에이블씨엔씨, 이니스프리, 토니모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9개사는 공통적으로 고객이 상품을 수령한 지 7일이나 15

일 이내에만 교환·반품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문구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고지했다. 현행법상 고객이 광고·계약 내용과 다른 상품을 받을 경우 3개월 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자의적으로 기한을 정해 고객들이 제대로 환불받지 못하게 하거나 계약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셈이다.

네이처리퍼블릭, 미즈온, 쏘내추럴 등 3개사는 고객이 인터넷에 작성한 사용 후기(후기) 가운데 상품의 품질에 대한 불만 등 업체에 불리한 내용이 발견되면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증정품 페이스마스크에서 별레가 나왔다”, “저녁 세안 후 사용했는데 갑자기(얼굴에) 붉은 게 올라왔다”는 내용 등 다른 소비자가 참고할 수 있는 위생 관련 정보가 포함된 글도 일방적으로 비공개 처리했다. 이 밖에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미즈온,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등 5개 업체는 온라인으로 구매한 화장품이 언제 어떻게 배송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9개사의 각종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하고 업체별로 250만~55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보험사, 보험금 지급 고객 상대 소송 쉽게 못한다

내달부터 시행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두고 고객을 대상으로 함부로 소송을 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관련 부당한 소송을 억제하고자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소송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소송 제기 여부

를 결정하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소송관리위원회는 내부 직원 외에 학계와 소비자보호 전문가 등 외부인이 참여하도록 해 부당한 소송을 사전 차단하도록 했다.

법무와 준법, 소비자보호 등 사내 관련 부서도 참여해 상호 견제하도록 했다. 소송 제기 때 소송금액이나 유형에 따라 담당인원 또는 최고경영자(CEO) 보고도 의무화했다. 일부 보험사가 내부 검증 절차를

결정하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소송관리위원회는 내부 직원 외에 학계와 소비자보호 전문가 등 외부인이 참여하도록 해 부당한 소송을 사전 차단하도록 했다.

도 없이 실무부서 담당자 전격로 소송을 남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험사들은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늦어도 내달 중에는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감원은 소송 제기 유형과 결과 등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 공시를 강화하고 실태점검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우리가 꿈꾸는 세상
서남권의 중심호텔

목포 상그리아비치관광호텔

모든 분들의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국내 외·귀빈과 V.V.VIP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치뤄내어 서남해안 관광산업과 목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상그리아호텔 홍보대사 김연자·김성환

평화광장과 영상감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탁트인 전망과 내집처럼 편안한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최신시설과 고급인테리어로 새롭게 탄생한 웨딩홀! 여유로운 시간, 하루 한달만 예약!!

웨딩 및 피로연 가족모임 각종 연회 세미나 들뜬치 등

상그리아비치관광호텔
SHANGRIA BIACH TOURIST HOTEL
530-390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 79(상동)
예약문의 (061)285-0100